

# “전주 관광안내표지 도보관광 중심으로”

이남숙 전주시의원, 5분발언서

“들쭉날쭉 설치 표지판, 각각 천차만별로 난립  
찾아가기 어려워” 관광거점 콘텐츠화도 제시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까지 유인할 수 있는 도보관광 중심의 체계적 관광안내표지와 표지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이남숙 의원은 “지역관광거점 도시로 최종 선정된 전주시가 전주형 한문화 콘텐츠, 슬로시티 전주의 핵심이 될 도보 관광, 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 공간적 문화 콘텐츠를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까지도 유인할 수 있는 도보 관광 안내 체계가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수년 전에 설치된 전주향교 진입 표지식이 배전판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잠안 벽화마을 역시 안내표지판은 고사하고 마을 입구

에 표지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들었다.

이 의원은 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들쭉날쭉 설치된 안내표지판과 안내문은 각 부서에 따라 설치돼 각각 천차만별로 난립돼 있어 관광자나 평소 마을들을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시 전역의 관광거점 콘텐츠화를 제시했다. 즉, 각 부서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동·마을 단위의 관광 거점형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안내관 개선 사업이 자칫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통일적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전주시 전역의 총괄적인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전주만의 특성이 감이 된 관광 안내표지판 디자인 표준화, 외국어 표기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기준 적용, 안내지도 단계적 통일 추진, QR코드 사용을 통한 스마트 기기 연계 사업, 야간 경관 활용을 겸한 안내표지의 조명 설치 사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남숙 의원은 “하루 빨리 ‘전주형 관광안내표지 구축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해, 전주만의 특성이 감이 된 관광 안내표지판 디자인 표준화, 외국어 표기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금 감면

민주 김수홍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식클)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현재 64%에 이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김수홍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수홍 의원은 “최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법률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조기 100% 분양을 비롯해 향후 2차 국식클 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국식클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2년부터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유치는 물론 분양계약이 완료된 곳도 투자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식클 분양면적이 18.9% 증가하는 등 조특법의 기업 유치 효과가 증명됐다. 2020년에만 국식클 입주기업 3곳(네오코레마, 셀로닉스, 피피이씨글로벌 김치)에서 7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식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수홍 의원은 “최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법률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조기 100% 분양을 비롯해 향후 2차 국식클 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성화

민주 이원택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현행 산림법은 고시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항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산림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산림바이오매스를 모으는 과정의 사업은 임가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생산한 에너지는 환경과 공존하는 새로운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문 대통령, 긴급 반부패협의회 소집... 부동산 투기 근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청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다. 지난해 6월 제6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한지 9개월 만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방안, 부동산 투기 자본세율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가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김승일 김제시의원 후보 ‘김제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조례 제정할 것’

4·7 보궐선거 지역인 김제시 나선거구(김산·금구·백구·용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는 김제시 건설사업, 물품구매사업, 지역축제업체선정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승일 후보는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김제시 관내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원에 당선되면 김제 지역업체가 김제시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대형사업에도 김제 관내업체를 하도급에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김제시 예산의 외부유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김제시의 물품 구매 사업 및 각종 지역축제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생산품이 우선 구매와 지역업체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김제시 예산이 김제시 업체를 통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명의 의심되면 '1339'로

## “글로벌 기업 도약토록 최선 다할 것”

우범기 정무부지사 현장행정  
세탁약품·무인 세탁함 개발  
도내 돌음기업 청세 등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도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지난 28일 나섰다.

이날 우 부지사는 지난해 우수 신제품 개발 분야의 전북도 우수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에스엠엔테크’와 전북도 돌음기업이자 전국에서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주식회사 청세’의 사업 현장을 찾았다.

주식회사 에스엠엔테크는 공기 청정 살균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인지, 감염병 예방과 유해 공기 정화 등을 위한 공기살균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에스엠엔테크의 주요 생산품인 공기 청정 살균기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각종 바이러스, 세균 등 오염물질 분해에 공기살균 모듈기술 등을 적용해 밀폐된 환경에서 30~60분 이내에 공기 중 떠다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력과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0년도 우수 신제품 개발 분야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에 이어, ‘조달청 혁신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중수 에스엠엔테크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감염관리 활동이 일상화되

고 있다”면서 “공기 청정 살균기가 각종 바이러스, 세균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청세는 세탁약품을 제조하는 청년 창업기업으로, 이기태 청세 대표는 “지난 2014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23세에 한 대학 기숙사의 세탁물을 모아서 동네세탁소에 가져다 주는 세탁 대행 서비스로 창업해 꾸준한 노력 끝에 지금의 청세를 탄생시켰다. 얼룩 제거제, 세탁 약품 등을 제조하며, 기름 대신 물과 특수세제를 이용한 친환경 워터클리닝 공법과, 24시간 365일 세탁물을 입·출고 할 수 있는 무인 세탁함까지 개발해 자체 기술을 적용한 세탁소를 개점하기도 했다.

전북도 돌음기업인 청세는 교육부 주관 ‘2020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데 이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 주관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700:1의 경쟁률을 뚫고 호남제주권 최초로 TOP 7에 진출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성,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이기태 청세 대표는 “청세의 친환경 워터클리닝 공법으로 세탁한 세탁물은 세탁 후 섬유 손상이 없어 많은 고객이 좋아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회’ 상반기 정기 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형규 민간위원장 및 정책협의회 위원 등이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 10월 15일 ‘전북도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조문 신설

국주영은 도의원 대표발의 ‘여성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은(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자문을 거처도록 수정했다.

또한,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현행 조례에서 이주 여성농어업인 위주의 정착지원 사업을 귀농한 여성농어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내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 UN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을 ‘전북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해 주목을 받았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북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황영석 도의회 부의장, 탈(脫)플라스틱 ‘고고 챌린지’ 동참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더불어민주당·김제1)이 지난 26일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환경캠페인 ‘고고(GO!GO!)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가 진행하는 ‘고고 챌린지’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가지와 해야 할 행동 1가지씩을 약속하고, 다음 참여 주자 3명을 지명하는 운동이다. 황 부의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우리의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봉투 사용을 거절하고,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후 분리 배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탈 플라스틱 운동을 위해 정비구나 텀블러 활용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